

2021 새해 새 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 “친환경 농어업 육성 경제 활성화...청정 일번지 만들것”



“대한민국 청정 일번지, 해남의 가치를 높여 비 교우위 자원인 농어업 육성과 지역산업 역동성을 키워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과 지역의 장기 성장동력이 될 현안 사업 추진 속도를 올려 조기에 경제 효과를 제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확산 등 선제적 농업혁신을 이끌어온 해남군은 전국 1위 친환경 인증면적(5410ha)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등 청정 농수산업·청정 먹거리 일 등 군으로서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비대면 마케팅 시대를 맞아 라이브커머스 등 맞춤형 농수특산물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선정된 2곳을 포함해 총 7곳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김산업 특화단지·스마트물류센터 조성 등 수산업

맞춤형 농수특산물 판매채널 확대

해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울돌목 케이블카·스카이워크 개통

관련 사업들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놔다.

2년 연속 전남도내 최대 발행·최대판매 기록을 세운 해남사랑상품권을 올해 1400억원까지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명 군수는 “각종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자급의 외부 유출을 막으면서 코로나 경기침체를 이겨내는 중요한 활력소가 됐다”며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년간 묵혀왔던 오시아노관광단지가 하수 처리장 등 기반 조성을 재가하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 상습가뭄 지역인 복일지구 수계 연결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해남정수장 신축

2021년 주요 사업

- ▲맞춤형 농수특산물 판매채널 확대
- ▲오시아노관광단지 개발 본격화
-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 ▲울돌목 케이블카·스카이워크 개통
-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 ▲해남청자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 강화

등 지역의 숙원들이 한꺼번에 풀리게 됐다.

올 하반기에는 해남군 신정사가 준공·이전하며 해남읍 매일시장도 신축,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해남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해 100% 분양이 완료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도 추진된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올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명 군수는 예상했다.

우수영 관광지의 울돌목 케이블카와 스카이워

크가 개통하며 역사관광촌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관광명소가 거듭난다.

땅끝에는 6대륙의 땅끝을 상징으로 하는 세계의 땅끝공원이 조성된다.

공용화석지는 첨단 AI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 박물관이자 워터파크가 갖춰진 가족형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와 함께 해남청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유산 관리에도 나선다.

제2스포츠타운과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도 저출생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한 해남군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보육과 돌봄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으로 목표를 확대했다.

명 군수는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해남, 청정 농수산업과 청정 행정의 3박자로 청정 일번지, 해남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 나섰다

올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200억 들여 중부권에 2024년 개관

10년간 자료 1500여점 수집

신안군이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에 나섰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흑산권역을 시작으로 섬 생활사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신안 중부권에 200억원 규모의 섬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그동안 6차례 조사한 기초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올해 섬 생활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신안군과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은 지난 2012년 흑산·홍도·가거도를 시작으로 비금·도초·자은·압태·안좌·팔금·임자·압해·지도와 진도·완도·경남 통영 지역의 섬 생활사 자료까지 조사해 총 7권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올해는 중도와 하의도·신의도 생활사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집한 생활사 자료는 1500여 점에 달한다. 섬마다 아직 남아있는 생활 도구들은 노령화와 산업화 등으로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사용했던 사람으로부터 제작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하고 기증받았다.

섬의 생태환경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한 섬사람들의 생활도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며 도구의 형태나 기능 비교를 통해



신안군이 지난 10여년 간 수집한 섬 생활도구 및 자료가 1500여점이다.

〈신안군 제공〉

지역의 정체성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섬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 등 어업 활동을 하며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농토가 없어서 경작이 어려운 일부 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섬에서는 주곡을 얻기 위해 농경 생활을 해왔다. 섬사람들의 삶과 생업에서 어구보다 농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다.

그들의 농기구와 생활도구는 섬 생활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우이도 진리마을에서 수집된 ‘파비’는 소가 없는 섬에서 쟁기 대신 많이 사용된 농기구로 밭을 일구거나 산에서 때를 뜯 때 사용

하기 유용하게 쌍날로 제작, 전승됐다.

지도읍 선도에서 확인된 ‘감투갈퀴’는 신안 압해, 지도 등지에서 자생하는 감태를 지칭하는 ‘갈투’에 갈퀴의 방언인 ‘갈퀴’가 합성된 생활도구이다. 선도 사람들은 정월에서 음력 3월까지 감태를 채취하는데 감태는 깃털에 붙어있어 갈퀴로 긁어서 채취하는 데 이를 ‘감투 맨다’라고 한다.

신안군은 이처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생활 도구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힘든 섬 생활사 자료들을 보관 전승하는데 박물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진도군 철마광장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28억원을 들여 완공한 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철마광장 주차장 인근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상황실과 관제실, 장비실, 사무실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완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에 들어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24명이다.

4조 3교대로 일반방범용 297대, 차량인식과 주차차단속용 58대, 어린이 보호용 64대, 쓰레기 투기 감시용 49대와 진도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관내 초·중·고 CCTV 120대 등 총 580여 대

의 CCTV를 모니터링한다.

올해 내 242개 전 마을에 마을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별도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없어 사건·사고의 사전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선제 대응이 가능해졌다.

진도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군민 생활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세열굴

## “화합·소통하는 공직문화 만들 것”

강효석 목포부시장

“23년에 걸친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목포 발전에 속도를 더하고 화합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48대 목포부시장에 부임한 강효석 신임 부시장은 6일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목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3대 전략 산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획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전남도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어느 조직이든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화합이 중요하다”며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동료 애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 출생인 강 부시장은 제1회 지방고시에 합격, 1995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목포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감사관 등 전남도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